

공동구호에서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세계계급교양, 도덕교양에 화력을 집중하라!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로 키우는 위대성교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임무를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최근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좋은 일들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전개하며 평양성전, 평양속도초조열풍을 세계에 알리고있다.

력량과 수단을

시당위원회에서는 5대교양에서 기본을 위대성교양에 두고 여기에 선전선동주의 화력을 집중시키는 원칙을 내세웠다. 여기서 시당위원회가 특이한 고리를 선전선동력량을 강화하고 수단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우선 선전선동력량문제를 보자. 시에는 시당위원회일군들과 구역, 군당위원회일군들은 물론 교양, 강연, 선동대에 따라 당 초급선일군들을 비롯하여 막강한 선전선동력량이 있다. 그러나 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선전선동력량에 대한 견해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모든 일군들이 다 정치사업을 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대로 시인의 당일군들, 당 초급선일군들, 근로단체일군

평양시당 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그 성과의 첫째가는 비결은 백두산정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통한 위대성교양사업 방법론있게 진행하여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는데 있었다.

평양시당위원회가 위대성교양에서 특이한 방법론은 크게 두가지라고 볼수 있다. 하나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양방법을 끊임없이 혁신하는것이다.

총동원, 총집중

들은 물론 행정경제일군들도 정치사업의 주력이라는 원칙을 내세운것이다.

시당위원회는 모든 일군들이 정치사업의 기수, 주인이라는 관점을 바로세워주기 위한 준비를 일으켰다. 일군들의 기술적전문분야가 중요하다고 본 시당위원회에서는 시인의 당, 행정, 근로단체일군들이 정치사업의 모범을 창조하도록 하고 그것을 일반화하였다.

이와 함께 당초급선일군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주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지난 1월에 진행된 선동선일군들의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통한 위대성교양의 열풍을 일으키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또한 선전

선동수단을 잘 갖추고 그를 적극 활용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을 돌린것이 방송선전차를 통한 교양사업이다.

지난해 시의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을 평양시버섯공장을 비롯한 주요전투장마다에 집중시켜 사상전의 준비를 일으킨 경험에 기초하여 시당위원회에서는 올해에 방송선전차들의 음향설비와 음향중복식대본들을 대한 전반적인 로해사업을 진행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웠다. 그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다운 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시라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심감있게 진행하고있다.

격과 격이 있어 진행되고있는 시당위원회일군들의 위대성교양사업은 건설장에 새로운 평양성전, 평양속도초조열풍이 새 차를 몰아치기 하고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전개되고있는 각급 당조직들의 위대성교양도 주목할만 하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 326전선공장, 평양공산공장 등 비록하여 시인의 평도업적단 위 일군들은 위대성교양을 실천하고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고있다. 그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

들이 자기 단위에 새겨진 정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대고조실심으로 빛내어갈 신념과 의지를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답사와 참관을 통한 위대성교양사업에도 큰 힘을 넣어 대고조실심에서 그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하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시당위원회에서는 올해에 시장위원회일군들과 시인의 각급 기관 일군들, 혁명가유자녀들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를 조직하였다. 또한 만경대혁명사적관과 김일성종합대학 혁명사적관, 장산혁명사적지를 비롯한 혁명사적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참관사업과 혁명사적지교양실, 연혁소개실을 통한 교양사업도 잘 짜고들었다.

본사기자 채인철

청진시 청암구역당 위원회에서

《김은구를 가져지고 밝은 날 쪽 온다.》《광복된 땅에서 춤추며 노래부를 그날은 멀지 않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이 뜻깊은 구호문헌을 접하는 순간 그들의 눈물을 치는것이 있었던것이다. 청암구역은 구호문헌이 많은 지역이다. 현재 발굴보존되어있는 구호문헌만 하더라도 180여점이나 된다. 그것을 잘 리용하면 현재정세의 요구에 맞게 신념교양을 강화하는데서 성과를 올릴수 있다고 보았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죽어도 살아도 내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반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열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쳐야 합니다.》

구호문헌을 통한 신념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도의하기에 앞서 구역당위원회일군들은 구호문헌보존교양실을 돌아보았다.

《모두다 백두산으로 가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승리의 그날 우리 기어오리라.》

청진시 청암구역당 위원회에서

《김은구를 가져지고 밝은 날 쪽 온다.》《광복된 땅에서 춤추며 노래부를 그날은 멀지 않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이 뜻깊은 구호문헌을 접하는 순간 그들의 눈물을 치는것이 있었던것이다. 청암구역은 구호문헌이 많은 지역이다. 현재 발굴보존되어있는 구호문헌만 하더라도 180여점이나 된다. 그것을 잘 리용하면 현재정세의 요구에 맞게 신념교양을 강화하는데서 성과를 올릴수 있다고 보았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죽어도 살아도 내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반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열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쳐야 합니다.》

구호문헌을 통한 신념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도의하기에 앞서 구역당위원회일군들은 구호문헌보존교양실을 돌아보았다.

《모두다 백두산으로 가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승리의 그날 우리 기어오리라.》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혁명가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에는 혁명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굳게 믿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끝까지 싸워나가는것이 혁명가의 참모습이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혁명의 길은 간고하고 어렵다. 피어린 사신의 언덕도 넘어야 하고 무한한 시련의 고비도 헤쳐나가기 하는것이 혁명이다. 혁명의 길에서는 모진 굶주림과 추위로 겪을수 있고 자기의 피와 살, 목숨까지도 바칠수 있다. 바로 이 길에서 열백번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나가는것이 혁명가의 본태이다.

백절불굴, 이것은 혁명가의 투철한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고로 《세기와 더불어》에서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교양을 떠나기에 앞서 남기신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는 몸이 쪼그라들기 위하여 대를 이어가며 고투하였던 사위 삼천리군수강산에 기어올라온 새봄을 가져오려는 굳은 맹세가 담겨져있다. 강회같은 의회고하시였다. 수령이 령도하는 정의로운 위업에 빛내어주는 초석이다.

불굴의 의지가 없었다면 혁명가로서 아니라 인으로서의 존엄마저도 지킬수 없게 된다. 리종학이나 림수안은 혁명에 참가한 년도도 오래고 직위도 높았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처하자마자 변절하였다. 역사적정평은 신념과 의지가 강하지 못하면 간고한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갈수 없다. 혁명의 배신자도 끝까지 버려지고만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진짜 우리 혁명은 의연히 엄중한 도덕과 온갖 시련속에서 전진하고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작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아보고자 비열한 제제와 괴뢰일당살책들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혁명의 길이 아무리 간고하다고 하여도 우리에게는 물러서거나 예외가 없는 일이 추호도 있을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장구한 역사적투쟁속에서 우리 사상과 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성을 뼈에 새기었으며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싸우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과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결연한 투쟁정신을 체질화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와 마두산혁명전적지를 비롯한 혁명전적지교양기점들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과 청소년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고있다. 이것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오고 천만대적의 달려들고도 하더라도 백두의 행군을 끝까지 이어가려는 천만군민의 억척불변의 의지의 표시이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최에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죽어도 살아도 내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라는 구호들이 제시되었다. 여기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백두에서 창조된 혁명신념, 혁명투지, 혁명배양을 만장약한 결연한 혁명가들로 키우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 깃들여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고귀한 지침으로 삼고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백절불굴의 혁명가로서의 빛나는 삶을 수놓아야 할것이다.

조 학 철

반세계계급교양의 도수를 높여

혁명투쟁 초급당위원회에서 반세계계급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시하게 진행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높여주고있다.

당조직에서는 계급교양점을 잘 꾸려놓고 강, 직장단위로 월 2차이상 참관사업을 진행하여 종업원들이 미제와 계급적원썬들의 야수성과 악랄성, 교활성을 뼈에 새기도록 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는 선동원들을

계기를 잘 리용할 때 실효가 크다

정방산종합식료공장 분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공정당조직이 사상교양에서 계기문제를 중시하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종업원들의 애국적의의를 한껏 북돋아주기 위한 모임이 있었었다.

지배인 서인옥, 기사장 박철, 운동부들과 함께 종업원들의 생산실적을 분석해본후 분초급당위원회 류순길동무의 생각을 깊었다.

(교양사업은 같이 했는데 실적에서는 왜 차이가 나는가.)

분초급당위원회는 그 원인을 실적이 앞서 못한 종업원들에게서 아니라 자신의 사업에서 찾아보았다. 분석해본후 류순길동무의 생각이 드러나는것이였다.

사실 사상교양사업을 많은 경우 학습회, 강연회, 종업원모임 등을 비롯한 몇개의 고정된 모임에서만 집중적으로 진행해왔었다. 이것이 하나의 굳어진 틀로 되어있었던것이다.

종업원들의 준비정도와 특성은 서로 다르다. 그런데 한가지 처방으로 모든 사람을 《치료》하려고 했으니 결과야 명백하지 않은가.

이로 하여 심각한 교훈을 찾은 그는 사상교양사업의 실효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문제를 연구하면서 사업을 혁신적으로 전개해나갔다.

도 덕 의 강 자

몇푼의 팔라를 위해 자식이 부모를 칼로 찌러죽이는것도 서슴치 않고 교정의 선생이 학생을 구하여 숨지게 하고도 《인간도덕》을 제쳐내는 미국사회, 백두에 목인정연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도 법적책임을 고사하고 도덕적책임도 지지 않아 세인을 격악케 한 불법무도한 세계가 바로 미국사회였었다.

이런 패륜패덕의 사회를 《인간》과 《총리도덕》의 본보이라 외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인륜도덕에 대한 모독과 우롱의 극치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썩어빠진 자본주의 사회의 도덕의 실태이다.

한다면 인류가 갈망하는 진정한 도덕의 리상향은 과연 어디에 있는것인가.

참다운 도덕은 오직 숭고한 사상과 고결한 정신, 순결한 양심의 토양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도덕의리의 최고정도로 간직하고 혁명동지들과 집단을 위하여 피와 살 지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을 행동으로, 도덕의리로 여기는것,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과 믿음, 사랑으로 충만한 교양한 도덕이품이 생활화, 체질화된것, 이것이 바로 수령의 숭고한 인민적품모를 삶과 투쟁의 귀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면 만사가 풀린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초급당위원회 사회업을 놓고

3대혁명붉은기청취운동발단 40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대중운동의 자랑찬 성과를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들어서려는 각지 당조직들의 투쟁이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다.

우리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을 통해서도 3대혁명붉은기청취운동이야말로 단위의 비약적발전의 강위력한 무기라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강력적 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장군님의 유훈은 곧 대중운동결의목표!

3대혁명붉은기청취운동결의목표는 그 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사상을 보는 거울이다.

몇해전 공장 초급당비서로 사업하게 된 김향희동무는 단위의 3대혁명붉은기청취운동실적을 논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당의 의도에 맞게 용당할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느끼게 되었다. 대중운동에 대한 일군들의 관심도 bars지 못했고 종업원들의 대중운동의 열의도 높지 못했다. 이런 속에서 3대혁명붉은기청취운동이라는 말도 되지 않았다.

초급당비서는 그 원인을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 대중운동은 곧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인 사업이라는 관점이 부족함에서 찾았다.

어머이상군님의 유훈관철과 대중운동을 별개의 사업처럼 여기는 관점은 대중운동결의목표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났던것이다.

결의목표가 관정을 위한 목표로 매우 실무적으로 일정한 틀에 맞추어 세워져있었다.

기술혁명결의목표를 보아도 생산공정의 현대화실현을 위하여 어떤 기술혁신과제를 누가 언제까지 수행하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방향적조만 제기하고있었다.

무엇이 빠졌는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우리 식으로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혁신내용이 없었다. 실제로 많은 자금을 들여 다른 나라에서 사오곤 하는 자동조작기의 어느 한 조종장치를 우리 식으로 만들어야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할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빠져있지 않았다.

문화혁명결의목표도 마찬가지였다. 생산문화, 생활문화의 본보기가 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지만 문화회관과 장장소건보수, 현대적인 수영관전실 등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다.

이것은 결의목표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로 일관되지 못하고 매우 실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세워져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부문에 주신 유훈, 당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문답식학습강연을 당세포별로 하고 근로단체조직별로 하였으며 작업반별로 하고 직장별로 하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지교시와 자기 부문의 유훈을 자자구구 새기고 실천과 결부하여 결의도 다지는 문답식학습강연을 통하여 장군님의 유훈이 자결의목표라는 높은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초급당위원회는 이런 성과를 토대로 하여 결의목표수립을 대중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켜나갔다.

몇몇 책임일군들이 모여앉아 결의목표를 세우던 지난 시기의 낡은 틀을 깨고 이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킨것은 좋은 결실을 가져왔다.

초급당위원회는 우선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조항한조항 따져가며 배진것이 없이 개인결의목표를 잘 세우도록 한 다음 그에 기초하여 작업반, 직장결의목표를 세우도록 하였으며 그 모든것을 종합하여 공장적인 결의목표를 수립하도록 하였다. 말하자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던 결의목표수립방식으로부터 아래에서 위로 오르는 방식으로 전환시킨것이다.

이렇게 되니 대중운동결의목표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내용으로 일관되고 구체성과 과학성, 현실성과 전망성이 철저히 보장된 결의목표로 되었다.

결의목표수립과정에 얻은 소득은 컸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장군님의 유훈관철이 곧 대중운동이라는 관점을 바로가치게 되었고 대중의 열의가 비약히 높아져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 장군님의 유훈이 그대로 반영된 리사적인 대중운동결의목표를 세우는데, 이것이 바로 초급당위원회사업의 첫번째 경험이다.

함께 기관차를 몰아야 비약한다

지배인 김명환동무를 놓고보아도 일우심이 많은 불같은 정열가고고 빈틈없는 작전가이며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고야마는 완강한 실천가였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이란 별다른 문이라고 내미는 대단한 배짱가였다. 사상 혁명동무는 또 어떤가. 그 역시 생산실비의 현대화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서 막히는데가 없는 실력가였고 정열가였다. 그들이 아니라 행정일군들도 모두가 하나같이 정열한 실력가들이었다.

이런 지휘성원들이 대중운동에 뛰어든다면 상상밖의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초급당위원회는 위원들이 대중운동결의목표수행에서 나서는 움직임이 종업원들 한복색 말아 해계기도록 분공조직을 하고 총화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정열한 사업체제를 세웠다.

실제로 지배인에게는 생산을 비롯한 공장 전반사업을 책임지면서도 가장 힘은

중전처럼, 공장밖은 공민처럼 전변시켰다. 그 나날에 지배인은 로력영웅으로, 많은 종업원들이 선군시대공로자, 명예청초,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니고 3대혁명붉은기, 2중26호보범기대예상, 선군봉화상을 행한 전투력있는 단위로 자랑떨치게 되었다.

사랑의 힘은 주인의 대부대를 낳는다

결의목표실현의 성과적담보는 대중을 어떻게 키우는데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초급당위원회는 이 문제를 사랑과 믿음의 힘으로 풀어나갔다.

종업원들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두 측면에서 말할수 있다.

하나를 종업원들을 사상정신력의 강자, 인재를 키우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생활을 잘 돌보아주는것이다.

초급당위원회는 종업원들에 대한 사랑중의 제일사랑은 그들을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투사, 념정혁명가로 키우는것으로 보고 여기에 선자적인 힘을 넣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과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을 비롯한 각종강당시설이 훌륭히 꾸려진데 맞게 그 동안 5대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였다.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실천과 밀접히 결합하여 심도있게 진행하였다.

공장에 새로 들어오는 종업원들이 배두산전설위인들의 발자취가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오도록 하는 사업, 공장에 들어온지 10년, 15년, 20년이 되는 종업원들을 위한 축하모임조직 등 실요성있는 교양방법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활용하였다.

그 과정에 종업원들의 사상정신적면모가 새로와지게 되었다.

초급당위원회는 또한 종업원들을 현대과학기술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닌 인재로 키우는데도 상당한 관심을 돌리었다.

일하면서 배우는 기풍을 세워 누구나 높은 기술수준을 소유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하신 수령에게 힘입어 버려야하는 초급당위원들의 기술적인 열의는 온 공장을 대중운동의 불길로 부글부글 끓여내치게 하였다.

이렇듯 당, 행정, 기술혁신일군들이 3월 1개가 되어 대오의 앞장에서 기관차를 몰아나간 그뒤를 일군들과 직장장들, 작업반장들 아니 모든 종업원들이 따라나섰던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결의목표실현의 불길속에서 현대적인 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그르친 갖추고 생산정상화의 동력을 세게 불렀으며 최첨단과업의 요구에 맞게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보화, 과학화수준을 높였다. 그리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결기기간 고지식모습을 생산기술을 새로 꾸리고 자동조작기도 손감부를 개발한것을 비롯하여 26건의 발명품과 570여건의 새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도입하였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공장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통이 큰 일판을 벌려 공장안은

사랑의 힘으로 주인의 대부대를 키웠것, 이것이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된 초급당위원회의 위대한 당시방법이었다.

공장이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투사들의 대부대로, 혁신자대변대로 전투적열의를 높이 떨쳐 생산과 건설에서 기적적인 전변의 새 력사를 안어온 이 모든 성과는 이곳 당조직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대중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데 근본비결이 있다.

《우리 장군님의 유훈대로 하면 만사가 풀리고 단위가 치켜들다.》 이것은 얼마전 2중3대혁명붉은기청취운동의 열매를 지닌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울려나온 한결같은 심장의 목소리이다.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대중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기만 만사가 풀린다. 이것은 절대불변의 진리이다.

본사기자 김영철
본사기자 장철범

애국의 신념에 과학기술을 더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청천강화력발전소의 일군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원로, 자체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실속 있게 벌려 알찬 열매들을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로, 자체,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당에서 내세운 전형단위들을 따라배워 자기 면모를 일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입병은 자력경쟁의 주되는 걸림돌이다. 하지만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닌 조건에서 이 병을 뿌리뽑는다는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이다.

하지만 청천강화력발전소의 일군들은 수입병에 어떤 처방을 내리고 어떻게 극복해가고있는가.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을 만능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자기 단위에서 생산하거나 능히 마련할수 있는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

머리를 저었고 다른 단위에서 만드는 용매를 대용해도 되지 않았는가고 하였지만 이들은 용이하지 않았다.

특히 거둬들이는 실패로 기술자들이 주저앉을새라 일군들이 필요로 한 설비와 시약, 최신과학기술성과자료를 제때에 보장해주면서 까치처럼 믿어주고 성공으로 떠밀어내었다. 일군들의 확고한 주전과 적극적인 방호에서 큰 힘을 얻은 공업시업소 기술자들은 오랜 기간의 고심 어린 탐구와 피하는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기술을 완성해내야하였다.

지금 이곳 발전소에서는 종류수 수백개로 된 용매를 없애기 위한 수입용매를 대신하면서 종전보다 실패는 절연현을 생산함으로써 절연체에 달하는 설비의 정비보수과제를 제때에 원만히 해결해가고있다.

이곳 일군들의 처방은 여기에만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제자원화이다.

이 땅의 모든것을 살찌처럼 귀중히 여기고 열과 정을 쏟아 부으면 능히 사회주의제부로 만들수 있다.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우리의것을 더욱 빛내이려는 애국헌신의 기풍을 지니고 공업폐기물, 폐설물을 재자원화하기 위한 투쟁도 실속있게 벌리고있다.

전동기수리과정에 나오는 폐설물을 놓고보자. 지난 시기에는 잘게 부수려진 이 절연물들을 쓸모없는것으로 치고 소각해 버리었다. 이를 대신하여 고압 및 저압전동기들의 수리정비에 값비싼 새 자재들이 쓰인것은 물론이고 소각과정에 유해물질들이 방출되어 환경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준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호밑에 소강 한철학동무와 신동훈, 전현명, 김철호동무들 비롯한 공업시업소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분쇄 및 성형설비를 갖추어놓고 이 폐설물을 합리적으로 재가공하여 필요한 절연물로 재움으로써 대용량으로 만들어낼수 있게 하였다.

본사기자 정순성

수백개의 물확보시설공사 완공

흥원군에서

위한 투쟁에도 일군들과 대중을 불리워야 했다.

수공업동무를 비롯한 책임일군들은 물확보전투지휘부를 내오고 물원천탐구와 확보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기초하여 군적으로 수백개의 물확보시설을 새로 건설하거나 보수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 들었다.

군일군들은 수천정보의 논밭에 필요한 물량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그 땅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 건설해야 할 대상과 개건보수해야 할 대상들을 지역별로 따져보고 짧은 기간에 유익하게 해제하기로 하였다. 일군들은 력량을 집중하여 군적으로

진행해야 할 대상과 해당 협동농장들에서 자체로 할수 있는 대상들을 바로 정하고 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었다.

군에서는 직접 군적력량을 집중하여 사물천보막이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일군들은 합정리다농업설계부서 일군들과 협의하여 설계를 앞세우고 로력과 자재, 기계수단보장, 시공조직을 짜고들면서 공사를 밀고나갔다. 가물막이공사와 기초공사, 길이가 260여나 되는 보강콘크리트지, 10개의 수문 설치공사, 물결결공사 등 변경한 공사사업지리 리명일, 변경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합리적인 공법들을 받아들

6개월이 걸려야 하는데 8개월동안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여기서 신심을 얻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편이 다른 대상의 물확보시설공사들에 달려붙었다.

그러하여 20여개에 달하는 동결천계단식보막이공사를 비롯하여 군적으로 50여개의 하천보막이공사를 진행하여 많은 물을 잡을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18개의 저수지공사, 수십개의 집수암거들도 개건보수하였다.

지나해와가물때의 피해현상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군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일념만고 온실남새생산을 늘려간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온실남새생산의 과학화실현에서 나서는 문제(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국대오에 마련해놓은 축산기지와 양어기지, 온실과 비닐하우스지들에서 생산물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온실남새생산을 과학화하여 생산을 늘이지만 병해충예방구제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온실에서는 겨울철에도 땅이 얼지 않으며 공기습도가 높고 년중 난배를 계속 재배하기때문에 병과 해충이 많이 발생할수 있다. 그러므로 총자살퇴우기, 모기퇴기, 토양파리, 영양파리, 수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영농공정에서 병해충의 피해로 인한 수확과감소를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하여 병해충방생권을 철저히 차단하는것과 함께 온실안의 습도를 낮추며 작물을 튼튼히 키우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종자, 모판흙, 소농기구, 온실밖에서 들어오는 남새모를 통하여 각종 병해충들이 전염되지 않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종자와 모판흙속을 철저히 하며 토양소독을 주기적으로 하

법과 물리적방법, 생물학적방법을 적극 배합하여야 한다.

농약분부는 필수품 같은 날오전에 하여야 하며 농약의 사용세수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투이행성농약을 5~7일간격으로 3~4회 뿌려준다. 진디몰이나 먼지진드기, 톱무지개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한 살충, 살진드기제를 3~5일간격으로 2~3회 뿌려 첫번째 농약분부에서 죽이지 못한 알로부터 가까운 새끼벌레들이 얼지 않게 하여 다시 알을 낳기 전에 죽여야 한다.

튼튼한 모기퇴기, 총분한 영양원소공급, 순치기, 필요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포기해야 한다. 열매숙을과 같은 포기판리, 온실안의 습도를 낮추기 위한 환풍팬리는 병해충예방구제를 위한 최상의 방도이다.

온실남새를 재배하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병해충예방구제사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잘 알고 그대로 병, 연부병과 로균병 등 혼돈하기 쉬운 병해충을 정확히 감별하고 구제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무작정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농업기술적

본사기자 김영철
본사기자 장철범

본사기자 김영철
본사기자 장철범

우리 당이 마련해준 노동자공전, 활화산처럼 나오는 충정의 불길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 말씀관철투쟁에 펼쳐나선 원산구두공장을 찾아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공장, 안락으로 흠 잡을데가 없는 만경짜리 공장이 라고 높이 평가하신 원산구두공장, 동해의 항구도시에 자리잡은 그리 크지 않은 이 경공업공장으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 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 우리 로동계급을 위하여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이 곳곳마다에서 뜨겁게 살아백박치는 그야말로 하나의 로동자공전이다.

우리는 참관자들로써 쉼이 공장을 돌아보며 위대한 그 사랑과 믿음속에 태어난 이곳 로동계급의 애국충정에 대하여 메루로 절감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공장의 기본생산건물과 사무실청사, 보조청사들은 다 종전 건물들을 전면적으로 개건한것이다. 새로 건설한 건물은 구내 측면에 있는 2층짜리 문화후생 시설뿐이다.

지난해 7월 공장을 찾아오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며칠후 강력한 건설력량을 보내주시는데 이어 매 건물과 구내마당, 휴식터의 형성안들을 하나하나 정해주고 신랄한시에 이렇게 안겨주었던것이다. 그는 남성로동자들과는 달리 여성로동자들의 작업복은 하늘색인데 그는 작업장에 들어가보아도 작업복이 비단색깔, 천정색깔과 잘 어울려 정갈 기분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창 재봉기앞에 앉아 작업에 여념없던 직장장 강원희동무는 당의 사랑속에 마련된 구두갑과 생산을 전진하는 현대적인 재봉기들을 다루며 너성로동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한창 설비지방을 늘어놓던 그는 우리를 어느 한 작업반후계설로 안내하였다.

드뎌 온돌바닥마당 온기도는 휴게실에는 새 쌀의함들이 그르히 추겨져있었다.

마침 휴식처가 되어 이곳에 들어서던 작업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터치는 후계설비장에 우리의 마음도 흥그러워졌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처럼 훌륭한 로동조건과 생활환경을 평범한 근로녀성들에게 통째로 마련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을 터뜨리는 직장장의 눈가에는 어느새 이슬이 맺혀있었다.

로동자공전에 넘치는 따사로운 사랑, 그속에서 만복을 누려가는 주인공들의 행복넘친 목소리를 우리는 2층에 있는 재화직장에서 들을수 있었다.

현지지도의 그날 환한 미소를 지고서 작업장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먼저 인사를 보내주시었다며 1 작업반의 윤광선동무는 말했다.

«우리 구두공장로동계급의 감사의 인사를 받으셔야 하실분은 다름아닌 우리 원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뜻깊은 광명성절을 앞두고 우리들을 위한 성대한 연회까지 치러주시실줄은 정말 꿈 같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천만번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하고 수호하고 끝없이 뱉어내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에 높은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많은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깨끗한 충정을 바치고 있다.

향당도립관리국 당책임 일군은 2012년 11월 많은 눈치기도를 마린해가지고 김일성종합대학에 찾아가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리용해달라고 절절히 부탁하였다.

평양최초원주부원 최귀혁을 비롯한 8명의 청년동맹원들은 2013년 10월부터 매일같이 김일성종합대학에 높은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많은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깨끗한 충정을 바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 높은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많은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깨끗한 충정을 바치고 있다.

향당도립관리국 당책임 일군은 2012년 11월 많은 눈치기도를 마린해가지고 김일성종합대학에 찾아가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리용해달라고 절절히 부탁하였다.

평양최초원주부원 최귀혁을 비롯한 8명의 청년동맹원들은 2013년 10월부터 매일같이 김일성종합대학에 높은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많은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깨끗한 충정을 바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의 벨라루시 공화국 방문에 대한 공동 보도문

2015년 3월 9일부터 11일까지 리수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이 벨라루시 공화국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리수용외무상은 아. 웨. 코바코프 벨라루시공화국 정부수상과 웨. 에스. 마슈웬스키제1부수상을 의례방문하고 웨. 미제이의무상, 웨. 에스. 체카노브부총상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벨라루시의 주요수출기업소들을 돌아보았다.

의례방문과 회담과정에 쌍방은 조선과 벨라루시사의 조화적인 협조관계를 정치와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발전시키는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하였으며 호상 관심사로 되는 지역 및 국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쌍방은 조선과 벨라루시사의 건설적이며 호혜적인 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기에 의지를 재확인 하였으며 경제분야를 포함하여 쌍무협조관계를 적극 확대해나감에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쌍방은 내정불간섭과 자주성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호상협력 을 더욱 긴밀히 해나가기에 의향을 표명하였다.

2015년 3월 12일
민스크

세계교예예술의 최고경지에 올라선 조선의 공중교예 제8차 이웹스크국제교예축전에서 우리 나라 체력교예 《정복자들》에 축전최고상과 기술상 수여

제8차 이웹스크국제교예축전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로씨야의 우드무르츠키야공화국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축전에는 우리 나라와 도이쉴랜드, 로씨야,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 웨.발, 에스빠냐 등 20여개 나라에서 온 170여 명의 이름있는 교예배우들이 참가하였다.

체력교예 《정복자들》을 가지고 축전에 참가한 우리 배우들은 여러 가지 난도높은 동작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심사위원들과 축전참가자들, 이웹스크시민들을 매혹시켰으며 그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와 절찬을 받았다.

우리 배우들이 하늘을 나는듯이 공중에 활공한 기교동작들을 펼쳐 보일 때마다 관람석에서는 요란한 환성과 열광적인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축전심사위원들은 한결같이 우리 교예배우들이 출연한 체력교예 《정복자들》을 세계교예예술의 최고경지에 올라섰다. 이번 축전에서는 조선의 배우들은 자기들의 높은 기교동작을 남김없이 보여 주었다. 앞으로 그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에 가서 진행되는 교예축전들에 참가하여 훌륭한 기교들을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축전심사위원인 벨라루시의 드지마코예단 지배인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교예를 보면서 사회주의 교육체계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사회주의 조선이 훌륭한 기교를 가진 교예배우들을 더 많이 키워내며 국제교예축전무대에 이바지하기 바란다.

조선과 월남사이의 외교관선 65수에 즈음하여 나무심기 및 친선모임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월남사회주의 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5수에 즈음하여 12일 주 월남대사관에서 나무심기 및 친선모임이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박경일 조선월남 친선협회 부위원장, 관계부서 수리아에서 3월8일 혁명 52수에 즈음하여 따따 쏘메이만 주 수리아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12일 조선수리아친선 중화군 중학교 급중학교를 참관하였다. 그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영도 사적이 깃들여있는 학교의 연혁을 들으며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내려가신 교실을 비롯하여 여러 교육시설들을 돌아보았다.

이와 함께 학생소년들의 예술 공연이 있었다.

우리의 송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날수록 자기들의 희망과 재능을 활짝 꽃피우며 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나는 이곳 학생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려준 공원은 손님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특명전권대사는 참관을 통하여

불라는 충정,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발현

리용해달라고 하면서 후대용 무선마이크와 증폭기 10조, 판리도구 수백점을 넘겨주었다.

대성구역 5월 13일 남포교 급중학교 3학년 학생 김지에는 지난 3년동안 매일같이 김일성종합대학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다.

대성구역 통흥초급중학교 2학년 학생 리현경과 그의 동생인 통흥초급중학교 4학년 학생 리현제도 두해전 10월부터

리용해달라고 하면서 후대용 무선마이크와 증폭기 10조, 판리도구 수백점을 넘겨주었다.

대성구역 5월 13일 남포교 급중학교 3학년 학생 김지에는 지난 3년동안 매일같이 김일성종합대학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다.

대성구역 통흥초급중학교 2학년 학생 리현경과 그의 동생인 통흥초급중학교 4학년 학생 리현제도 두해전 10월부터

기쁨의 웃음소리 한껏 넘쳐나는 립체물동영화관

영화관을 훌륭히 일떠세웠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이 어려웠던 립체물동영화관에 영화상영시설들과 오락시설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도록 하여 올해 양력설부터 립체물동영화관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립체물동영화관은 총 4개의 립체물동영화관과 경미오락장, 폐수정오락장, 전자시각장 등 9개 판으로 되어있다.

이리 설비들이 갖추어진 4개의 립체물동영화관에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라», «바다에서의 즐거운 모험», «적류속에서» 등 립체물동영화가 상영되고 있다.

지난 양력설부터 운영을 시작한 황해북도에서 립체물동영화관이 새로 건설되어 운영을 시작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높은 뜻을 받들어 짧은 기간에 립체물동영화관을 일떠세우기 위한 조직정지사업을 짜고들었다.

늘었고 경향있는 일군들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자체보장대책을 세워두는 한편 건설일정계획을 현실조건에 맞게 빈틈없이 세우도록 하였다.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자

평안북도에서

지할수 있는 립체물동영화관을 건설할것을 결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정지사업을 짜고들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인민위원회에서는 늘었고는 일군들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강력한 건설력량을 동원하는것과 함께 세멘트와 철근, 골재를 비롯한 자체보장사업을 앞세우며 립체물동영화관건설을 힘있게 내밀었다.

건설을 맡은 평안북도 신의주 청년동맹위원회는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을 현실로 꽃피울 열의와 힘을 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돌격전을 벌여 20일 남짓한 기간에 기초골격과 기초콘크리트타입공사를 진행하고 벽체속속총공사의 90%이상을 해제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각 도들에 립체물동영화관을 현대적인 기차같이 나게 건설할데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영화관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을 높이 받들고 도당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 신의주평안과 도에출구장이 잘잡고있는 백운원주변의 명당자리에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

수리아대사관 성원들 중화군 중화고급중학교 참관

조선의 교육과 문화발전수준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이 학교가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이바지하기 바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받들고 산림복구전투에 펼쳐나선 조선의 투쟁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 진행된 나무심기와 조선을 수련화, 원림화, 파수화하는데 이바지하기 바란다

특명전권대사는 참관을 통하여

우리의 전략적선택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오늘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다단하며 나라와 지역사이의 관계구조가 끊임없이 변화되고있다.

어제날 대국으로 명명받던 나라들이 무너져 그 나라가 행사하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세력진영들이 치열한가 하면 발전도상나라들이 미국의 일국체제기도를 파탄시키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 발전된 나라들이 여러차례의 경제위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전에 다른 나라들을 눈앞에 보던 판도를 버리고 달리는 국제관계구조에 맞게 전략적방향을 바로잡아나가고있다.

반면 자기 원칙적대결을 세우지 못하고 좌왕우왕하다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희생물이 되어 발전하는 시대적으로 따라서 맞지 못하고 영영 현대판식민지로 굴러떨어질수 있는 위험에 빠져있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제국주의자들에게 대한 환상에 물젖어 원칙을 포기하고 양보와 타협의 방법을 무마하는 난관을 피해보려는 나라들도 있다.

현시기 국제무대에서는 각이한 정세변화가 한해가 다르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대국들의 지도부가 바뀌고 국회에서 차지하는 의석수에 따라 여야당의 처지가 바뀌어지면 해당 나라의 정책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고 선진국들의 정책이 물거품이 되어 국제관계구조가 새롭게 형성되는 변화도 자주 일어난다.

현실은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변화되는 국제정세와 관계구조형성에 어떻게 대처해나갈까 하며 나라와 민족의 리익과 존엄, 자주권수호를 위하여 어떤 원칙을 견지하고 투쟁해나갈까 하는가 하는 대외정책적태도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세기 후반기의 역사발전과정을

놓고보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는 사회주의진영과 제국주의력강들, 신흥 세력나라들로 세력구도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형태적인 구도였으며 그안에서는 명토문제와 세력진영, 경제구역관계를 비롯한 각양각색의 모순과 대립으로 충돌과 마찰이 일어나고있었다.

문제는 그 시기 형성된 국제적인 세력구도에 전적으로 매여 자기의 전략적선택을 위한 나라들과 조성되고있는 국제정세변화의 추이에 따라 뜻을 단 나라들, 제국주의의 반동성과 반인민성, 취약성을 꿰뚫어보고 자주적로선을 견지한 나라들의 국력이 지금에 와서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나타나고있다는데 있다.

당시에는 매개 나라들의 정책적 우월성과 생활력이 크게 차이났지는 않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갈라지고있는것이 다. 여기에 서 말하는 국력은 결코 국제총생산액이나 무역액, 미사일, 함선의 수량을 놓고 말하는것이 아니다.

그 어떤 팽풍이 불어와도 끄떡없이 견딜수 있는 인민들의 단결력과 국방력의 토대, 경제적잠재력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것을 넘두에 두는것이다.

일부 나라들에서 기준으로 삼고있는 발전지표의 수가 높다고 하여 국력이 강하다고 보는것은 절반만 옳게 가하는 하나의 치례거리에 불과하다. 전례없이 로말화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강권과 압력을 물리칠수 있는 힘이 없으면 도대체 국력에 대하여 논할수 없다.

지난 시기에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발전하였다고 자랑하던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러나 그 나라들은 쓰미평전지도가 허물어지는것과 동시에 미국의 무자비한 침략전쟁의 희생물이 되었다.

평전의 종식은 힘의 정책의 파산을 의미하였지만 미국은 여전히 힘에 의한 정책에 매달려있었다.

미국의 종말이 멀지않았다는것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평이다. 어리석은 미국의 힘의 정책에 의해서 망한 나라들을 보면 레외없이 어느 한 대국이나 국제기구에 기대를 걸면서 자체의 국력을 키우지 못한 나라들이었다.

평전시기 그 어느 대국이나 국제기구도 작고 약한 나라들이 미국의 침략의 희생물 되는것을 막아주지 못하였다.

유엔안에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장 사용으로 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쟁과 강권행위를 막지 못하였다.

력사는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주변관계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오나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킬수 있는 국력을 튼튼히 다져나갈야 한다는것을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주변관계구조가 어떻게 바뀌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앞세워는 적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한 선군정치와 병진로선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 병진로선은 그 어떤 정세변화나 관계구조형성에 변하지 않는 불변의 자주권과 존엄, 사회주의를 튼튼히 수호할수 있게 하는 가장 위력하고 정당한 정치방식, 전략적로선이다.

현시기 세계의 열점지역들을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유럽과 중동지역, 조선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지역이라고 볼수 있다. 이 지역들을 둘러싸고 국제정세는 부단히 변화되고있으며 대국들의 세력관계구조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뀌고있다. 그속에서 작은 나라들은 큰 나라들이 판계속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편견 밑에 어떤 대외정책을 실시할것인가를 고심하기도 하고있으며 이미 선택한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략적선택에서 가장 중요하였는 국제관계구조나 다른 나라와 지역, 국제기구에 미련을 가질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믿는것이다.

자기의 힘이 제일이이다. 이것은 력사의 교훈이며 진리이다.

현시기의 국제정세를 놓고보아도 잘알수 있다. 나라가 동란을 겪고 인민이 도란에 빠져있는 나라들을 보면 레외없이 자기의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 기대를 걸 나라들이었다.

시련과 난관앞에서 동요하고 주저하며 원칙을 양보하고 적대세력들 앞에서 타협, 굴복한 나라들은 갈래없이 자기의 힘이 약하다는 사고관점에서부터 출발하여 로선을 선택하였다.

나라의 전략적로선을 선택하는데서 중요하였는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는것이다.

자주의 원칙은 매개 나라와 인민들이 그 어떤 로선상이나 발전도 없이 복잡한 국제정세에 구애되지 않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부흥발전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하고 위력한 원칙이다.

그 어떤 침에한 국제문제나 발생하였을 때 매개 나라들은 여러가지 각도에서 전략적선택을 하게 된다. 그때 자기의 인민의 힘을 무시하고 국제기구

나 대국의 반응과 눈치를 보며 대응방식을 취하는것은 벌써 자주성을 요구하는 인민대중의 요구를 짓밟는것으로 된다.

자기 나라의 실정과 구체적조건에 맞게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국제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나라와 민족이 그 어떤 풍파나 우여곡절을 겪지 않고 곧바로 길로 나갈수 있다.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속에서 자주성을 짓누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주의 신념과 함께 자기들에게 미련을 가질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믿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 기간 자주로 일관된 대외정책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승리만을 펼쳐왔다. 자주는 우리의 생명이며 운명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악랄해지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선군정치와 병진로선을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나갈것이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주변관계구조가 어떻게 바뀌든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책들이 구도에 이르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에게 총대를 더욱 강화하고 국력을 보다 튼튼히 다져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며 승리해온 우리 혁명의 력사와 오늘의 국제정세는 선군정치와 병진로선은 언제나 정당하고 위력한 하는것을 두말이 증명해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선택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채 일 출

베인 《김정일장군 만세》친목회, 주제사상연구 베인전국위원회가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의 침략적인 《키 리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무분별한 전쟁연습으로 극히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뜻깊은 올해에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고 자주통일의 대토를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침략적인 전쟁연습으로 전체 조선민족과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을 우롱하면서 조선반도를 기어이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고 발악하고 있다.

조선된 사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장본인이 바로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이라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리고있는 위협만만한 《키 리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준철히 규탄한다.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할것이다.

최후의 승리는 정의의 위업실현에 펼쳐나선 조선군대와 인민 《통일》을 의미하는것이다.

* * * * *
일본 에히메현대조선문제연구소 대표 나다 다카시가 최근

인터넷홈페이지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침략책동을 규탄하는 글을 올렸다.

필자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해마다 벌리는 《키 리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과 그 위협성에 대하여 까발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은 형식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체제를 파괴하기 위한 책동을 벌리고있다.

그것이 절대성원된것이 바로 군사연습이다.

올해 1월 미국남조선연합사단참모부가 공식 편성되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목적은 특수작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무너뜨리는데 있다.

올해 합동군사연습에 이련합단참모부도 참가한다. 《키 리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내용은 해마다 더욱 흉악화될 연습이 언제 전쟁으로 번질지 알수 없는 위험한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합동군사연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 떠들었다.

조선반도에서의 미국의 군사연습은 공화국이 핵을 보유하기 전부터 진행되어왔다. 해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할것이다.

최후의 승리는 정의의 위업실현에 펼쳐나선 조선군대와 인민 《통일》을 의미하는것이다.

* * * * *
일본 에히메현대조선문제연구소 대표 나다 다카시가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업실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업실현에 대한 전망

조선중앙통신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 마시령스키장 소개

로씨야, 도이쉴란드, 브라질등 판도들이 마시령스키장을 소개하였다.

8일 로씨야의 파스톤은 조선에서 평양-마시령관광버스차운행을 시작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령도자의 발기에 따라 건설된 마시령스키장은 모든 사람에게 리용할수 있는 10개의 스키주루가 있다.

볼빛이 환한 스키주루에서 사람들은 야간에 스키를 탈수 있다.

어느 한 산정에는 비형물체형식으로 건설된 식당도 있다. 편리한 식당을 타고 그곳에 가갈수 있다.

마시령의 좋은 날씨와 적합한 기후로 하여 이곳은 더할나위없는 겨울철휴양지이다.

마시령스키장은 조선의 많은 스키에올려야 할 관심을 끌고있다.

도이쉴란드에선 인터넷홈페이지는 6일 《마시령스키

장》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이전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의 마시령에 세계적인 스키장이 건설되어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을 끌고있다.

호텔과 스키봉사 및 숙소건물들이 특색있게 꾸러진 마시령스키장은 스키장으로서는 미국이나 다른 판파트로서의 매력도 가지고 있다.

세계적인 마시령스키장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몸소 마시령스키장건설을 발기하시고 력사적인 호소문을 발표하시였으며 신세현명한 건설장을 여러차례 찾오시어 군인건설자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고 공사를 최단기간에 끝낼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개장한 마시령스키장을 찾오시어 사도를 태우고 정경까지 오르시며 안전성과 편리성을 로해하시였다.

여성들의 권리보장문제에 대해 언급

캄보다수상 훈 센이 8일 국제부녀결에 즈음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여성들의 권리보장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정부가 지난 기간 남남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말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힘을 넣을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 * * * *
방글라데슈수상 셰이크 하시다가 7일 3.8국제부녀결에 즈음하여 발표한 서한에서 여성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할 필장을 밝혔다.

서한은 정부가 여성문제 해결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겠다고 하면서 이미 여성들에 대한 총력행동을 방지하고 그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정책이 작성된 데 대해 언급하였다.

앞으로 더 많은 여성들을 정치, 군사, 사법, 교육 등 여러 분야의 활동에 적극 참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지적하고 서한은 이것은 국가발전의 더욱 추동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합 조
아랍추장국원방과 부르키나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비행전술훈련 진행

로씨야의 바렌즈에서 최근 중부군관구 전투기들의 비행전술훈련이 진행중이다.

훈련에는 CM17-3 전투기와 Cy-24M 전술폭격기 승조원들과 조기경보기, 정찰기 승조가 참가하였다.

훈련과정에 비행사들은 118차례 출격하였으며 가정적의 미사일들과 비행기들을 소멸하였다 한다.

6일 중부군관구 공보부가 밝혔다.

합 조
아랍추장국원방과 부르키나

미국 신형무기시험 감행

미국이 신형무기개발에 계속 광분하고있다.

최근 미국의 군수독점체인 록히드 마틴회사가 Imlic이상의 거리에서 자동차기관을 파괴할수 있는 레이자무기

미군 신형무기시험 감행

미국이 신형무기개발에 계속 광분하고있다.

최근 미국의 군수독점체인 록히드 마틴회사가 Imlic이상의 거리에서 자동차기관을 파괴할수 있는 레이자무기

미국 신형무기시험 감행

미국이 신형무기개발에 계속 광분하고있다.

최근 미국의 군수독점체인 록히드 마틴회사가 Imlic이상의 거리에서 자동차기관을 파괴할수 있는 레이자무기

지역적 통합을 위한 동아프리카 나라들의 노력

동아프리카 나라들이 최근 지역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그 한 고리로 7일 르완다에서 북부통로통합계획에 관한 지역 나라들의 수뇌자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우간다, 탄자니아, 케냐, 르완다, 부룬디, 에티오피아, 남부수단 국가수반 및 정부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북부통로통합 계획실현에서 거둔 지역 나라들의 경제무역발전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이를 통한 통합과정을 더욱 다그쳐 지역의 번영을 이룩할것을 호소하였다.

현재 동아프리카 나라들은 북부통로통합계획에 따라 하루구조, 에리트레아, 윤수, 정보통신기술, 무역 등 분야에서 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있다 한다.

미사법성 사회적으로 인종차별이 만연되고 있다

미사법성이 최근 한 보고서에서 사회적으로 인종차별이 만연되고있는데 대해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패시시에서 벌어진 사태는 제도적으로 목인, 조성되고있는 인종차별의 심각한 증거라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패시시에서의 경찰당국과 사법당국은 교통단속과 국가권력의 발동, 감금형질서 등 여러 측면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불공평한 인종차별적인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지난해 현지사법당국이 흑인 청년을 살해한 백인경찰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린것이 바로 그 대표적실례이다.

또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자동차를 몰고다가가 경찰의 의해 단속당한 사람들의 86%가 흑인이었는데 그것은 백인들에 비해 2배나 더 많았다.

경찰의 박해와 감금형을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도 흑인들이었다.

미국이 파쇼도이쉴란드의 운명을 뒤따르고 있다

요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미국의 종말에 대한 소리가 계속 나돌고있다.

이러한 속에서 얼마전 로씨야신문 《브라우다》가 《미국이 전면전쟁에 내적준비가 되어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있다.

글은 미국에서 파시즘이 재현되고있는데 그것은 민족배타주의와 인종주의, 침략전쟁을 광란적으로 고취하는 파시즘이 오늘날 미국의 국가사상으로 되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다국 국제적인 자료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저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금융체계를 악용하고있다는것, 이것도 통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나라들을 악마로 둔갑시키고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는것, 파시즘을 대외정책실현수단으로 삼은 미국때문에 새로운 세계대전 지어 열릴전쟁도 일어날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것이 미국을 결코 구원할수 없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요컨대 미국이 세상에 저들밖에 없는것처럼 놀아대지만 파쇼도이쉴란드가 세계제국에아래에 미쳐들었다가 종말을 고한것처럼 반드시 멸망한다는것이다. 미국이 그 징표를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파쇼도이쉴란드의 운명을 뒤따르고 있다

요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미국의 종말에 대한 소리가 계속 나돌고있다.

이러한 속에서 얼마전 로씨야신문 《브라우다》가 《미국이 전면전쟁에 내적준비가 되어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있다.

글은 미국에서 파시즘이 재현되고있는데 그것은 민족배타주의와 인종주의, 침략전쟁을 광란적으로 고취하는 파시즘이 오늘날 미국의 국가사상으로 되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다국 국제적인 자료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저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금융체계를 악용하고있다는것, 이것도 통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나라들을 악마로 둔갑시키고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는것, 파시즘을 대외정책실현수단으로 삼은 미국때문에 새로운 세계대전 지어 열릴전쟁도 일어날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것이 미국을 결코 구원할수 없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요컨대 미국이 세상에 저들밖에 없는것처럼 놀아대지만 파쇼도이쉴란드가 세계제국에아래에 미쳐들었다가 종말을 고한것처럼 반드시 멸망한다는것이다. 미국이 그 징표를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파쇼도이쉴란드의 운명을 뒤따르고 있다

요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미국의 종말에 대한 소리가 계속 나돌고있다.

이러한 속에서 얼마전 로씨야신문 《브라우다》가 《미국이 전면전쟁에 내적준비가 되어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있다.

글은 미국에서 파시즘이 재현되고있는데 그것은 민족배타주의와 인종주의, 침략전쟁을 광란적으로 고취하는 파시즘이 오늘날 미국의 국가사상으로 되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다국 국제적인 자료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저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금융체계를 악용하고있다는것, 이것도 통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나라들을 악마로 둔갑시키고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는것, 파시즘을 대외정책실현수단으로 삼은 미국때문에 새로운 세계대전 지어 열릴전쟁도 일어날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것이 미국을 결코 구원할수 없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요컨대 미국이 세상에 저들밖에 없는것처럼 놀아대지만 파쇼도이쉴란드가 세계제국에아래에 미쳐들었다가 종말을 고한것처럼 반드시 멸망한다는것이다. 미국이 그 징표를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파쇼도이쉴란드의 운명을 뒤따르고 있다

요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미국의 종말에 대한 소리가 계속 나돌고있다.

이러한 속에서 얼마전 로씨야신문 《브라우다》가 《미국이 전면전쟁에 내적준비가 되어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있다.

글은 미국에서 파시즘이 재현되고있는데 그것은 민족배타주의와 인종주의, 침략전쟁을 광란적으로 고취하는 파시즘이 오늘날 미국의 국가사상으로 되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다국 국제적인 자료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저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금융체계를 악용하고있다는것, 이것도 통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나라들을 악마로 둔갑시키고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는것, 파시즘을 대외정책실현수단으로 삼은 미국때문에 새로운 세계대전 지어 열릴전쟁도 일어날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것이 미국을 결코 구원할수 없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요컨대 미국이 세상에 저들밖에 없는것처럼 놀아대지만 파쇼도이쉴란드가 세계제국에아래에 미쳐들었다가 종말을 고한것처럼 반드시 멸망한다는것이다. 미국이 그 징표를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파쇼도이쉴란드의 운명을 뒤따르고 있다

요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미국의 종말에 대한 소리가 계속 나돌고있다.

이러한 속에서 얼마전 로씨야신문 《브라우다》가 《미국이 전면전쟁에 내적준비가 되어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있다.

글은 미국에서 파시즘이 재현되고있는데 그것은 민족배타주의와 인종주의, 침략전쟁을 광란적으로 고취하는 파시즘이 오늘날 미국의 국가사상으로 되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다국 국제적인 자료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저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금융체계를 악용하고있다는것, 이것도 통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나라들을 악마로 둔갑시키고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는것, 파시즘을 대외정책실현수단으로 삼은 미국때문에 새로운 세계대전 지어 열릴전쟁도 일어날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것이 미국을 결코 구원할수 없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요컨대 미국이 세상에 저들밖에 없는것처럼 놀아대지만 파쇼도이쉴란드가 세계제국에아래에 미쳐들었다가 종말을 고한것처럼 반드시 멸망한다는것이다. 미국이 그 징표를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이다.

과도한 유희 오락의 부정적 후과

세계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과도한 유희 오락의 후과로 청각 장애를 겪고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발표

시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안경 개발

최근 어느 한 나라에서 시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3D안경을 개발하였다.

이 안경은 대상을 움직이는 능력이 뛰어나고 3D안경의 기능을 가진 2대의 투화촬영기들을 동시에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휴대

시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안경 개발

최근 어느 한 나라에서 시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3D안경을 개발하였다.

이 안경은 대상을 움직이는 능력이 뛰어나고 3D안경의 기능을 가진 2대의 투화촬영기들을 동시에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휴대

시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안경 개발

최근 어느 한 나라에서 시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3D안경을 개발하였다.

이 안경은 대상을 움직이는 능력이 뛰어나고 3D안경의 기능을 가진 2대의 투화촬영기들을 동시에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휴대

시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안경 개발

최근 어느 한 나라에서 시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3D안경을 개발하였다.

이 안경은 대상을 움직이는 능력이 뛰어나고 3D안경의 기능을 가진 2대의 투화촬영기들을 동시에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휴대

시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안경 개발

최근 어느 한 나라에서 시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3D안경을 개발하였다.

이 안경은 대상을 움직이는 능력이 뛰어나고 3D안경의 기능을 가진 2대의 투화촬영기들을 동시에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휴대

시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안경 개발

최근 어느 한 나라에서 시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3D안경을 개발하였다.

이 안경은 대상을 움직이는 능력이 뛰어나고 3D안경의 기능을 가진 2대의 투화촬영기들을 동시에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휴대